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안 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강 영 신†

전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차별로 인한 우울을 완화시키는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A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차별감은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차별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지지 또는 친구 지지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들의 지지가 차별로 인한 우울을 완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성결혼이민자, 지각된 차별감, 우울, 사회적 지지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9141).

† 교신저자: 강영신,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57호,
E-mail: lavieenrose@jnu.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지난 이십여 년간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국내 다문화가정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약 25만 가구에서 2020년 약 36만 가구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현상은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은 더이상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국가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는 다양한 소수집단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지만 국내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은 편이다.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내 선주민이 다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이웃으로 외국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해 편견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선주민이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지는 않는다. 김혜신(2015)의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한 결과, 미국인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 대학생의 인식은 부정적이고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다(김

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이는 국내 약 45%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으로(통계청, 2022), 절반에 달하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편견의 대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과 여성결혼이민자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의하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 여성 중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0%로 나타났는데, 그중 62.6%는 자신의 출신국가가 차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통계청, 2020). 또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지난 1년간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0%로, 그들은 거리, 동네, 일반 상업시설,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등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 조사 때에 비하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렇듯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희주, 2019). 구체적으로, 국내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은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진, 임동권, 이성규, 2014; 김한성, 이유신, 2013; 김희주, 2019; 조선주, 안주희, 2020; 조선주, 오현경, 민현주, 2017). 이들은 한국사회

에서 소수집단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Meyer(2003)는 소수집단 스트레스 모델을 제안하며 소수집단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자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이 경험하는 소수집단 스트레스는 낙인,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야기하는데, 이는 개인이 속한 소수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체성 등과 같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소수집단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소수집단에 속한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집단소속감, 사회적 지지는 소수집단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즉, 이주민은 새롭게 이주한 국가에서 차별을 경험할 때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겪을 수 있는데(Chau, Bowie, & Juon, 2018; Tummala-Narra & Claudius, 2013), 소수집단 스트레스 모델이 제안하였듯이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차별감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가족, 동료, 연인 또는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존경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Wills, 1991).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주변인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지 자원으로,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들의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Zimet, Powell, Farley, Werkman, & Berkoff, 1990). 개인에게 중요한 이들은 가족, 친구 또는 지인이 될 수 있는데, 중요인은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이 되는 조언, 위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들의 지지

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hoits, 2011).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인지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킨다(Lin, Ye, & Ensel, 1999; Seeman, Lusignolo, Albert, & Berkman, 2001; Turner-Cobb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이안나, 강영신, 2020),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Taylor, 2011). 따라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며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필수적인 지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친척,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현경자, 김연수, 2012).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이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조절효과는 다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동남아시아인이 지각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친구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ummala-Narra, Alegria, & Chen, 2012). 배우자의 지지 또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지각된 차별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선행연구도 있다(Chung & Epstein, 2014). 한편, 모국

인의 지지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다(Ra, Huh, Finch, & Cho, 2019). 이는 지지를 제공받는 개인과 지지를 제공하는 이와의 관계의 형태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hoits, 2011).

앞선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주민은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 특정 인종 및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Thibeault, Stein, & Nelson-Gray, 2018).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Bernstein, Park, Shin, Cho, & Park, 2011; Budhwani, Hearld, & Chavez-Yenter, 2015; Kim & Noh, 2014; Yang, Wu, Huang, Lien, & Lee, 2014),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국내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강한 이주민 효과(healthy immigrant effect)’는 이주민이 새로운 국가인 이주국에 이주한 이후 초기에 이주국의 국민과 비교하여 더 건강한 현상을 뜻한다(Vang, Sigouin, Flenon, & Gagnon, 2017). 즉, 이주민은 이주 초기 당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이주민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이주국의 국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 이주민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Kim, Carrasco, Muntaner, McKenzie, & Noh, 2013).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더불어 부부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같이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김혜련, 2013) 다른 이주민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Lin et al., 1999; Seeman et al., 2001; Turner-Cobb et al., 2002)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란블락과 유금란(2021)의 연구는 몽골이주민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현경자와 김연수(2012)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Harrell(2000)에 의하면 차별 경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달리 소수집단 구성원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주민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새로운 문화권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다른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구분짓는 것이 필요하다(Yakushko, 2010).

개인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소수집단원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삶의 스트레스 근원이기 때문에(Harrell, 2000; Meyer, 2003) 국내 오랫동안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문화국가로 변모하게 되면서 한국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Chung & Lim, 2016). 차별은 특정 집단이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동등한 지위

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로 (Schulz, Israel, Williams, Parker, Becker, & James, 2000),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ang et al., 2014). 지각된 차별감은 이주민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Chou, 2012), 특히 이주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Flores, Tschann, Dimas, Bachen, Pasch, & de Groat,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차별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의 심리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ran, 2014). 그럼에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그들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로 인해 초래된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자원, 즉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완충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희주(2019)의 연구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과 우울 경험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구분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차별로 야기된 우울이 감소하는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족, 친구, 중요인의 지지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이 우울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중요인의 지지로 구

분하여 각 지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로 인해 유발된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상담 및 지원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요약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것인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각각의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 친구 지지, 중요인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A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A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출신국의 모국어인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설문지를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설문지를 번역가 및 통역가에 의뢰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모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된 설문지를 다른 번역가 및 통역가에 의뢰하여 감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14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1.46세($SD=11.06$)로, 국적은 베트남이 4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8명(26.2%), 필리핀 30명(20.7%), 일본 28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91명(62.8%)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33명(22.8%), 3년 이상 5년 미만 12명(8.3%), 1년 이상 3년 미만 9명(6.2%)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58명(40.0%), 전문대졸 32명(22.1%), 대졸 30명(20.7%), 중졸 이하 23명(15.9%), 대학원 졸 2명(1.4%), 종교는 불교 34명(23.4%), 기독교 24명(16.6%), 천주교 22명(15.2%), 무교 40명(27.6%), 기타 25명(17.3%)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1점=전혀 못한다'에서 '4점=매우 잘한다'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 4점 만점 중 평균 말하기 점수 2.70($SD=.78$), 평균 듣기 점수 2.81($SD=.76$), 평균 읽기 점수 2.74($SD=.81$), 평균 쓰기 점수 2.59($SD=.85$)로, 듣기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쓰기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and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의 하위척도인 지각된 차별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총 8문항(예: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8점~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의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지지 4문항(예: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친구 지지 4문항(예: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중요한 지지 4문항(예: 나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점수범위는 12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95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중요한 지지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90, .92, .91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의 우울증상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총 20문항(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0점=거의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0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

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1.0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고,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4.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은 국적(베트남 준거집단),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독립 변인은 지각된 차별감, 종속 변인은 우울, 조절변인은 사회적 지지(전체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중요한 지지)를 투입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Hayes(2017)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수 10,000개를 설정하

여 부트스트래핑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변인의 $\pm 1SD$ 를 중심으로 개별 회귀선을 도식화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독립성 검증

본 연구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가장 큰 절대값은 1.038, 첨도의 가장 큰 절대값은 1.684로 정규성이 가정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는 .241에서 .81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는 1.245에서 4.1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확인한 결과, 1.562로 잔차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표 1.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	1	2	3	4	5	6
1. 지각된 차별감	1					
2. 사회적 지지	-.349***	1				
3. 가족 지지	-.406***	.897***	1			
4. 친구 지지	-.245**	.918***	.705***	1		
5. 중요한 지지	-.312***	.938***	.768***	.819***	1	
6. 우울	.289***	-.356***	-.323***	-.303***	-.357***	1
평균(M)	2.191	3.701	3.760	3.601	3.733	.780
표준편차(SD)	.783	.851	.926	.952	.905	.472

** $p < .01$, *** $p < .00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지각된 차별감은 사회적 지지($r=-.349, p<.001$), 가족 지지($r=-.406, p<.001$), 친구 지지($r=-.245, p<.01$), 중요한 지지($r=-.312, p<.001$)와는 부적상관을, 우울($r=.289,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우울은 사회적 지지($r=-.356, p<.001$), 가족 지지($r=-.323, p<.001$), 친구 지지($r=-.303, p<.001$), 중요한 지지($r=-.357, p<.001$)와 부적상관을 나

타냈다.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023, p<.05$),

표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조절변인	독립변인	β	SE	t	R ²	ΔR^2
우울	사회적 지지	지각된 차별감 (X)	.427	.129	3.313**	.261***	.023*
		사회적 지지 (W)	-.257	.075	-3.424***		
		X * W	-.023	.011	-2.043*		
		상수	11.003	4.800	2.024		
		연령	.250	.110	2.268*		
		거주기간	-.061	.995	-.061		
		한국어 능력	-.137	.286	-.475		
		출신국(일본)	-10.075	3.479	-2.896**		
		출신국(중국)	-7.017	2.354	-2.981**		
		출신국(필리핀)	-3.574	2.120	-1.686		
	가족 지지	지각된 차별감 (X)	.416	.131	3.163**	.245***	.010
		가족 지지 (W)	-.661	.212	-3.120**		
		X * W	-.040	.031	-1.313		
		상수	12.390	4.861	2.549		
		연령	.240	.112	2.150*		
		거주기간	.004	1.005	.004		
		한국어 능력	-.199	.291	-.657		
		출신국(일본)	-10.955	3.509	-3.122**		
		출신국(중국)	-8.174	2.355	-3.471***		
		출신국(필리핀)	-3.755	2.149	-1.747		

표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계속)

종속변인	조절변인	독립변인	β	SE	t	R ²	ΔR^2
우울	친구 지지	지각된 차별감 (X)	.492	.128	3.834***	.231***	.013
		친구 지지 (W)	-.546	.202	-2.700***		
		X * W	-.051	.034	-1.503		
		상수	11.032	4.897	2.253		
		연령	.243	.113	2.157*		
		거주기간	.101	1.017	.099		
		한국어 능력	-.157	.295	-.531		
		출신국(일본)	-9.946	3.561	-2.793**		
		출신국(중국)	-6.983	2.423	-2.882**		
	출신국(필리핀)	-3.785	2.161	-1.752			
	중요인 지지	지각된 차별감 (X)	.449	.128	3.513***	.264***	.027*
		중요인 지지 (W)	-.674	.201	-3.225**		
		X * W	-.065	.029	-2.215*		
		상수	10.137	4.802	2.111		
		연령	.263	.110	2.386*		
거주기간		.062	.985	.063			
한국어 능력	-.153	.287	-.533				
출신국(일본)	-10.004	3.474	-2.880**				
출신국(중국)	-6.868	2.351	-2.922**				
출신국(필리핀)	-3.678	2.114	-1.740				

* $p < .05$, ** $p < .01$, *** $p < .001$.

주. 출신국 준거집단(베트남).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² 변화량도 유의하였다($\Delta R^2 = .023, p < .05$). 따라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표 3). 평균중심화된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3.618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지지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5).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1SD$ 수준일 때($\beta = .663, p < .001$)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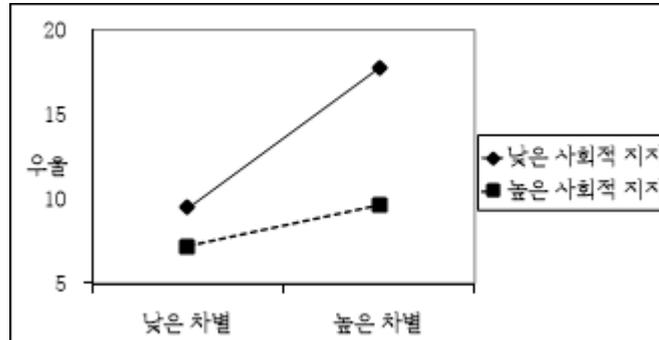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수준일 때($\beta=.427, p<.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그림 1에 도식화하였다.

지각된 차별감과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표 3.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점수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	Effect	SE	t	p	95% CI	
					LL	UL
-32.382	1.145	.394	2.903	.004	.365	1.925
-29.982	1.083	.368	2.940	.004	.355	1.812
-27.582	1.022	.343	2.981	.003	.344	1.699
-25.182	.960	.317	3.026	.003	.333	1.587
-22.782	.898	.292	3.075	.003	.321	1.476
-20.382	.837	.268	3.126	.002	.307	1.366
-17.982	.775	.244	3.180	.002	.293	1.257
-15.582	.713	.221	3.234	.002	.277	1.149
-13.182	.652	.199	3.281	.001	.259	1.044
-10.782	.590	.178	3.311	.001	.238	.942
-8.382	.528	.160	3.304	.001	.212	.844
-5.982	.467	.145	3.227	.002	.181	.753
-3.582	.405	.133	3.038	.003	.141	.669
-1.182	.343	.127	2.701	.008	.092	.594
1.212	.282	.127	2.223	.028	.031	.532
2.295	.254	.128	1.978	.050	.000	.508
3.618	.220	.132	1.665	.098	-.041	.481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상호 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

지각된 차별감과 친구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상호 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지 않았

다. 따라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지의 조절효과

지각된 차별감과 중요한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eta=-.065$, $p<.05$),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Delta R^2=.027$, $p<.05$). 따라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지의 조절

표 4.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지 점수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중요인 지지	Effect	SE	t	p	95% CI	
					LL	UL
-10.924	1.123	.355	3.142	.002	.421	1.826
-10.124	1.066	.333	3.200	.002	.407	1.725
-9.324	1.008	.311	3.240	.002	.393	1.624
-8.524	.951	.290	3.283	.001	.378	1.523
-7.724	.893	.268	3.329	.001	.363	1.424
-6.924	.836	.247	3.377	.001	.346	1.325
-6.124	.778	.227	3.424	.001	.329	1.227
-5.324	.720	.208	3.468	.001	.310	1.131
-4.524	.663	.189	3.503	.001	.289	1.037
-3.724	.605	.172	3.518	.001	.265	.946
-2.924	.548	.157	3.498	.001	.238	.857
-2.124	.490	.143	3.418	.001	.207	.774
-1.324	.433	.133	3.247	.002	.169	.696
-.524	.375	.127	2.959	.004	.124	.626
.276	.318	.125	2.549	.012	.071	.564
1.076	.260	.127	2.049	.042	.009	.511
1.185	.252	.128	1.978	.050	.000	.504
1.876	.202	.133	1.517	.132	-.062	.466

표 5.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우울에 대한 지각된 차별감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Effect	SE	t	95% CI	
					LL	UL
사회적 지지	높음 +1SD (10.215)	.191	.173	1.100	-.152	.533
	평균 M (0)	.427	.129	3.313**	.172	.682
	낮음 -1SD (-10.215)	.663	.173	3.832***	.321	1.005
중요인 지지	높음 +1SD (3.618)	.213	.163	1.306	-.109	.535
	평균 M (0)	.449	.128	3.513***	.196	.702
	낮음 -1SD (-3.618)	.685	.170	4.034***	.349	1.02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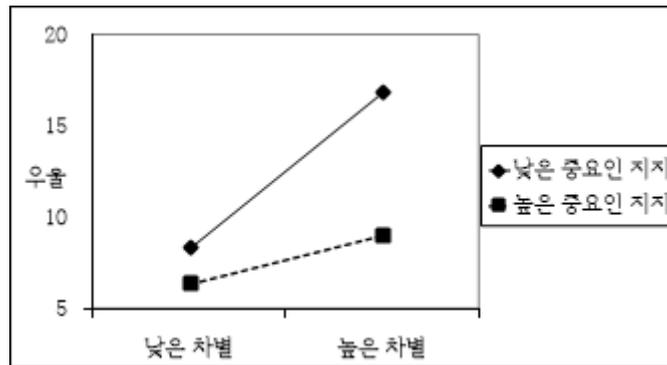


그림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중요인 지지의 조절효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표 4). 평균중심화된 중요인 지지의 점수가 1.876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인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지각된 차별감과 중요인 지지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5). 중

요인 지지의 수준에 따라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중요인 지지가 -1SD 수준일 때($\beta = .685, p < .001$)와 평균 수준일 때($\beta = .449, p < .001$)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인 지지의 조절효과를 그림 2에 도식화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그들의 우울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A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차별감이 우울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Kim, 2014; 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 즉, 지각하는 차별 수준이 높으면 우울 수준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여 오랫동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여성가족부, 2022; 최윤정 등, 2017).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원인 차별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Kessler, Mickelson, & Williams, 1999), 본 연구의 참여자의 약 60%는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여전히 차별을 경험한다고 지각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국적, 연령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어 능력과 국내 거주기간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 또는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차승은, 김두섭, 2008; 하주영, 김윤지, 2013).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른 우울은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결과도 존재한다(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국적에 따른 문화적 특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변성원, 2011). 개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직업, 대인관계와 같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상실할 수 있고, 이는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김진영, 2009). 이에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다양한 영역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양옥경, 김연수, 2007; 임혁, 2010; 하주영, 김윤지, 2013). 반면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경원, 2010)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임수진 등, 2009). 이는 양적인 측면의 거주기간보다는 한국생활에서의 다양한 질적인 요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김희주, 2019; Ajrouch, Reisine, Lim, Sohn,

& Ismail, 2010; Meyer, 2003).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특정 문화권 또는 인종 출신으로 인해 차별을 겪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울을 호소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이 감소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의 지지 이외에 상사, 전문가 등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들의 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박지원, 1985), 본 연구결과, 가족의 지지 또는 친구의 지지가 아닌 여성결혼이민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인의 지지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중요인의 지지 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차별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중요인의 지지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이들은 우울을 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의 지지는 다른 이들의 지지보다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Thoits, 201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과 친구가 아닌 그들에게 중요한 이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로 인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가족 및 친구의 지지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들의 지지가 완충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중요한 이들이 적절한 지지를 제공할 때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Cohen & Wills, 1985; Taylor, 2011). 예를 들어, 미국 내 아시아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 차별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교내 유학생지원센터의 지지가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Chen, Mallinckrodt, & Mobley, 2002). 유학생에게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학생지원센터가 그들에게 필요한 지지를 적절한 때에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그들의 우울이 완화되었다. 지지 제공자는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적절한 인지적, 정서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 없이는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원하는 지지를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지지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Feeney & Collins, 2015). 이는 타국에서 문화적응하며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와 같은 중요인의 지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이들이 주는 인지적, 정서적 또는 물질적 자원은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양육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주 초기 불충분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를 제공받기 어렵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자신의 모국 출신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개인적인 어려움일수록 모국 출신인 지인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신의 어려움을 의논할 상대가 모국인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의논상대가 한국인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여성가족부, 2022).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들의 지지를 제공받는다면 차별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우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국내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며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는 2018년도와 비교하여 하락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비수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다문화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소수집단 구성원의 인지, 정서, 행동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정, 직장 및 일터,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차별경험은 그들의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이 국내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살펴본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이안나, 강영신, 2022).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같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다문화교육을 포함하여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국내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복지기관 전문가 집단의 지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Chen 등(2002)의 연구에서 아시아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국의 친구 또는 미국 내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은 지인들보다 교내 유학생지원센터의 지지가 차별로 인한 우울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의 원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가 부재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공공복지기관의 전문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지지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중요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에 공공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의 다문화역량을 포함한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며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에게 중요한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지를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Taylor, 2011). 따라서 공공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은 모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보편적인 지원 및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국과 같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는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

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Taylor, 2011) 여성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차별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라는 대처 자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들의 스트레스 근원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출신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차별에 관심을 두고 차별과 우울의 관계 및 그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아닌 횡단연구로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인에 대한 정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가족, 친구, 중요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친구 또는 주변인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한국사회라는 낯선 문화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이 누구인지, 중요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소 중 정서적, 평가적, 정보 지지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원 (2010).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경험.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4(2), 133-144.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육진, 임동권, 이성규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 25-49.
- 김유균, 손인서, 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1), 89-113.
- 김한성,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혜련 (2013).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185, 1-8.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혜신 (2015). 대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113-135.
- 김희주 (2019).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사회, 10(1), 13-28.
- 나란볼락, 유금란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35-49.
-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성원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농촌간호학회지, 6(2), 69-77.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여성가족부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이경순, 연영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697-709.
- 이안나, 강영신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91-521.
- 이안나, 강영신 (2022).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5(1), 65-86.
-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189-221.
- 조선주, 안주희 (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5(2), 69-103.
- 조선주, 오현경, 민현주 (2017).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94(3), 109-140.
- 차승은, 김두섭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인구학, 31(3), 131-157.
- 최윤정 등 (201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20).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통계청.
- 통계청 (2022).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통계청.
- 하주영, 김윤지 (2013).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4), 254-264.
- 현경자,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 Ajrouch, K. J., Reisine, S., Lim, S., Sohn, W., & Ismail, A. (2010). Perceived everyday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Does social support matter? *Ethnicity and Health, 15*(4), 417-434.
- Bernstein, K. S., Park, S. Y., Shin, J., Cho, S., & Park, Y. (2011).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New York Cit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1), 24-34.
- Budhwani, H., Hearld, K. R., & Chavez-Yenter, D. (2015). Depression in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The impact of nativity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2*(1), 34-42.
- Chau, V., Bowie, J. V., & Juon, H. S. (2018).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Korean, and Vietnamese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4*(3), 389-399.
- Chen, H. J., Mallinckrodt, B., & Mobley, M. (2002). Attachment pattern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urces of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impact of U.S. racism and cultural distress. *Asian Journal of Counseling, 9*(1-2), 27-48.
- Chou, K. L.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new migrants to Hong Kong: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8*(1-2), 63-70.
- Chung, G. H., & Lim, J. Y. (2016). Marriage immigrant mothers' experienc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maternal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 2894-2903.
- Chung, H., & Epstein, N. B. (2014).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sian immigra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port and interpersonal strain from a partner.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2*, 129-139.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Feeney, B. C., & Collins, N. L. (2015). A new look at social support: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riving through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2), 113-147.
- Flores, E., Tschann, J. M., Dimas, J. M., Bachen, E. A., Pasch, L. A., & de Groat, C. L.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perceived stres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Mexican-origin adul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4), 401-424.
- Harrell, S. P. (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1), 42-57.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Kessler, R. C., Mickelson, K. D., & Williams, D. R.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208-230.
- Kim, I. (2014). The role of critical ethnic awareness and social support in the discrimination-depression relationship among Asian Americans: Path analysi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1), 52-60.
- Kim, I. H., Carrasco, C., Muntaner, C., McKenzie, K., & Noh, S. (2013). Ethnicity and postmigration health trajectory in new immigrants to Canad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4), e96-e104.
- Kim, I. H., & Noh, S. (2014).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ive immigrant group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6(6), 1167-1175.
- Lin, N., Ye, X., & Ensel, W.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4), 344-359.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Ra, C. K., Huh, J., Finch, B. K., & Cho, Y. (2019). The impa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ve symptoms and the role of differentiated social support among immigrant population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8(1), 1-9.
- Radloff, L. S. (1977).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and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chulz, A., Israel, B., Williams, D., Parker, E., Becker, A., & James, S. (2000). Social inequalities, stressors and self reported health status among African American and white women in the Detroit metropolitan are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1(11), 1639-1653.
- Seeman, T. E., Lusignolo, T. M., Albert, M., & Berkman, L. (2001). Social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atterns of cognitive aging in healthy, high-functioning older adult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Health Psychology*, 20(4), 243-255.
- Taylor, S. E. (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H. S. Frie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189-214). Oxford University Press.
- Thibeault, M. A., Stein, G. L., & Nelson-Gray, R. O. (2018). Ethnic identity in context of ethnic discrimination: When does gender and other-group orientation increase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for immigrant-origin young adul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4(2), 196-208.
- Thoits, P. A. (2011). Mechanisms linking social ties and suppor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2), 145-161.

- Tran, A. G. (2014). Family contexts: Parental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chil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3(1-2), 37-46.
- Tummala-Narra, P., Alegria, M., & Chen, C. N.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South Asians: Mixed finding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1), 3-16.
- Tummala-Narra, P., & Claudius, M.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immigrant-origin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3), 257-269.
- Turner-Cobb, J. M., Gore-Felton, C., Marouf, F., Koopman, C., Kim, P., Israelski, D., & Spiegel, D. (2002). Coping,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style as psychosocial correlates of adjustment in men and women with HIV/AID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5(4), 337-353.
- Vang, Z. M., Sigouin, J., Flenon, A., & Gagnon, A. (2017). Are immigrants healthier than native-born Canadians? A systematic review of the healthy immigrant effect in Canada. *Ethnicity & Health*, 22(3), 209-241.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H.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265-289). Sage Publications, Inc.
- Yakushko, O. (2010).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lives of recent immigrants: A grounded theory model.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32(4), 256-273.
- Yang, H. J., Wu, J. Y., Huang, S. S., Lien, M. H., & Lee, T. S. H. (2014). Perceived discrimination, family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immigrant women in Taiwan.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7(5), 359-366.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Zimet, G. D., Powell, S. S., Farley, G. K., Werkman, S., & Berkoff, K. A. (199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610-617.

1차원고접수 : 2023. 01. 31.

심사통과접수 : 2023. 03. 20.

최종원고접수 : 2023. 03. 30.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Oan Na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Global Diaspora Studies

Young-Shin K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e participants were 145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discrimin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econ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In the group with high perceived discrimination,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 high level of social support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on. Specifically, soci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are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However, those who perceive a low level of social support may experience a high level of depression. Limit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discrimina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married immigrant women*